

한국보건의료의 좌표



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언제나 우선 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보건부문의 투자 성과가 측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보건재정 투자가 감축되기 쉽지만, 방치했을 때에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속한 국민들의 건강을 더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정책추진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국가보건정책이 막연한 이념보다는 과학적인 근거 위에서 입안되고 이에 적절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한지, 어떠한 질병을 주로 앓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보건의료기관 이용 관행을 갖고 있고, 흡연 등 건강을 저해하는 생활습

생생한 통계에 입각한 '현실' 인식과 통찰력 있는 지식기반 하에서만
 '건강수명의 연장'과 '사회계층간의 건강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의로운 국가보건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자질 없이 수행되어질 수 있다.

관은 어떠한지 등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 문제와 관련되는 기초 자료와 근거를 확보하고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여 1998년에 이루어진 국가적인 조사 연구사업이다. 이 조사는 과거 각각 분리되어 이루어졌던 '국민건강 및 보건 의식행태조사'와 '국민영양조사'를 통합하고, 여기에 '건강검진조사'를 새로이 포함하여 심층분석을 함으로써 그 결과를 우리 나라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의 본격적인 국민건강실태조사이다.

이 조사결과를 통하여 산출되는 보건 통계와 지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건강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이다. 현실에 어두우면 정책은 주먹구구식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가의 통계 부족이 어떠한 혼란과 손실을 가져오는지를 종종 경험해 왔다. 그러나 이제 보건부문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로부터 국민건강의 현황과 문

제점에 관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된 만큼 국민을 위한 장단기 보건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필요한 좌표가 제시되었다고 하겠다.

“모든 정책 실패의 배경에는 통계의 부족과 부정확, 통계에 대한 몰이해가 숨어 있다”는 지적을 채적으로 삼아 보건복지부문에서는 정확한 통계의 생산과 이용의 중요성에 더 큰 관심과 배려를 갖고, 앞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그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발전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많이 이용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보건의통계로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가 맞고 있는 새로운 시기에서는 생생한 통계에 입각한 '현실' 인식과 통찰력 있는 지식기반 하에서만 '건강수명의 연장'(increasing the healthy active life)과 '사회계층간의 건강격차 완화'(narrowing the health gap)에 초점을 맞춘 정의로운 국가보건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차질 없이 수행되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